

# 당신의 원예실력 '마음껏'

### 농진청, 내달 24~27일 열리는 생활원에 경진대회 아이디어 정원·접시정원 등 참가자 내달1일까지 모집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9회 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9.24.~9.27. 수원 컨벤션센터)와 연계해 열리는 제16회 생활원에 중앙경진대회(생활원에 경진대회) 참가자를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텃밭상자(플랜트박스)를 활용해 실내정원 조성 능력을 겨루는 '아이디어 정원'과 거실·방 등 좁은 공간과 어울리는 원예작품의 구성 실력을 선보이는 '접시정원'이다.

참가자격은 회원 경영주 또는 원예 감사 등 전문인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본 대회에서 수상이력이 없는 개인이다.

참가문의와 신청접수는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담당부



지난해 열린 생활원에경진대회 접시정원 최우수상 수상작.

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거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예선을 거친 뒤 9월 23일 대회가 열리는 수원 컨벤션

터에서 본선을 치른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생활원에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생활원에 대중화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일환으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대회는 현장경진으로 이뤄지는 '아이디어 정원' '접시정원' 부문 외에도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교 학습원' 부문, 지자체의 생활원에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생활원에 체험온실' 등 4부으로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생활 속에서 원예를 즐기는 개인과 동향적인 디자인 감각을 지닌 식물 애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저신용 소상공인 위해 500억원 지원

### 장애인가업·여성기업·청년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대출 신청·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운영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가업,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정책자금의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8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이번 대출은 수요자의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북지역 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된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여파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창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온라인) 신청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jeonbuk/main.do) 및 소진공 누리집(www.semss.or.kr)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친 전북도민들을 위해 '힘내라 전주, 리프레쉬 간식사업'을 전주시에 함께 8월 한달간 갖는다고 밝혔다.

## '힘내라 전주, 리프레쉬 간식사업'

### 하이트진로, 공무원 간식지원행사 이달 한달간 진행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몸과 마음이 지친 전북도민들을 위해 '힘내라 전주, 리프레쉬 간식사업'을 전주시에 함께 8월 한달간 갖는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커피와 간식은 전주시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인 전주시 장애인부모회와 초록채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하이트진로는 향토기업으로써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 7일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전북 지역 공무원 및 내방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 임직원들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대학생 자원봉사단 등 약 100여명의 인원이 함께 리프

레쉬 간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날에는 전북대거리카페에서 지역내소상공인, 소방서, 경찰서 및 주요 주민센터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상자(커피와 간식)'를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특관전주지점 김학선지점장은 "코로나19와 장마로 지쳐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및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 주기 위해 장학사업, 지역 아동 돌봄사업 지원, 지역농산물구입 및 기증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중기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과 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에 기술개발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김윤상 기자

#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풋귤' 본격 출하

### 농진청, 공기 차단된 비닐봉지·저온서 상품성 오래 유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본격적인 풋귤 출하 시기를 맞아 상품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품질 좋은 풋귤을 공급하려면 △상온에서 종이상자를 사용할 경우 비닐포장 후 상자에 담는 것이 좋고 △스티로폼 상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냉매제가 과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종이로 칸 뒤 포장할 것을 추천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공기가 차단된 비닐봉지나 저온(5℃)에서 풋귤을 보관하면 겉질에 노란색이 드는 비상품 과일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5℃)에서 5일 동안 보관한 풋귤에서는 1%의 비상품 과일이 발생했고, 같은 기간 비닐 포장한 뒤 상온(20℃)에 둔 풋귤에서는 2%의 비상품 과일이 발생했다.

반면, 일반 종이상자에 풋귤을 담아



상온(20℃)에서 5일 동안 보관했을 때는 7% 이상의 비상품 과일이 발생했고, 9일이 지난 뒤에는 비상품 과일 발생이 60% 이상으로 늘었다.

풋귤은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사용할 목적으로 여름(8월 1일~9월 15일)에 출하하는 노지

감귤이다.

풋귤은 완전히 익은 과일보다 구연산은 3배, 총 폴리페놀 함량은 2배 정도 높아 청이나 식초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무더운 여름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

풋귤 생산량은 2016년 323톤을 출하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1,5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풋귤 수확 적기는 감귤꽃이 70~80% 정도 핀 시기를 기준으로 100~120일째 되는 때이다.

제때 풋귤을 수확하면 불필요한 가을 순 발생과 이듬해 해거리 없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풋귤을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현재욱 감귤연구소장은 "제배 기술과 유통 기술을 널리 보급해 풋귤이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조합원·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 전주김제완주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5000억 달성탑 수상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6일 상호금융 예수금 5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을 수상하게 된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기준 예수금 5천억원을 달성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성일)의 전수로 진행된 이번 달성탑 전달식은 박성일 본부장이 직접 전주김제완주축협을 방문하여 진행했다.

이번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을 수상하게 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은 "조합사업 130년 돌파에 이어 상호금융 예수금 5천억원의 달성하기까지 조합을 믿고 적극적으로 이해해주신 조합원과 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으며, 실적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관리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남부안농협은 7일 전북 부안군 줄포면 갯벌생태관에서 관내 농업인 200여명에게 '농업인 행복 버스' 사업을 선보였다.

## '농업인 행복버스' 부안에 왔네

### 전북농협-남부안농협, 장수사진 촬영 등 진행

전북농협과 남부안농협은 지난 7일 전북 부안군 줄포면 갯벌생태관에서 관내 농업인 200여명에게 '농업인 행복 버스' 사업을 선보였다.

이날 농업인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15~20명씩 나눠서 입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사전에 행사장을 소독했고 행사 참여자와 관계자 모두 발열 체크와 손소독 후 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최우식 조합장은 "행복 버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농사일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의료지원, 장수 사진 촬영, 문화예술공연, 무료 법률상담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농촌 종합 복지서비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기초연금 이야기' 동영상으로

### 국민연금 '기연스토리' 시리즈 3편 제작 공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7일 국민들이 기초연금제도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경험을 담은 동영상 '기연스토리' 시리즈 3편을 제작해 공개했다.

'기연스토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한 '2019년 기초연금 홍보콘서트 공모전'에서 수상한 체험수기를 줄거리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트로트 노래를 더해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제작했다.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재미있는 캐릭터'이다. 시리즈 첫 번째 '왕 할머니' 편은 수확여행을 가는 손녀에게 용돈을 줌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졌다. 할머니 이야기로, 여행을 기대하는 손녀와 친구들의 개성 만점 표정과 귀여우면서 푸근한 할머니 모습이 매력적이다.

시리즈 두 번째 월급 편은 기초연금

을 받아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된 할아버지 이야기로, 기초연금 받기 전, 후 할아버지의 극명한 표정 변화가 재미를 준다.

시리즈 마지막 '틀니' 편은 기초연금을 받아 망가진 틀니를 교체한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의외화된 귀여운 틀니 캐릭터와 할아버지와 코믹한 이별 장면이 웃음 포인트이다.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귀에 착착 감기는 트로트 송'이다. 최근 전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장르'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했다.

신나는 리듬, 구수한 사투리와 인터넷 용어가 어우러진 가사, 한번만 들어도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는 노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상할 만한 가치를 준다.

'기연스토리'는 국민연금 유튜브 채널(https://youtu.be/S28mGJKCVU)에서 만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JB카드와 함께 '휴식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막바지 휴가시즌을 맞아 12일까지 'JB카드와 함께하는 휴식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해 JB카드가 휴식과 힐링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긴 장마와 무더위,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준비한 이번 이벤트는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1주씩 20만원 이상 이용 시 넷플릭스 1개월 이용권, 편의점 이용권, 커피쿠폰 등 휴식을 위한 다양한 경품을 25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응모고객 대상으로 5명을 추첨하여 온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뷔스 외 식품권을 제공한다.

상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콜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co.kr), 뉴스마트 뱅킹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